

— F-333 —

토끼털에 의한 직업성 천식 1예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선녕 · 이석정 · 노진규 · 이민수 · 김신태 · 리원연 · 용석중 · 신계철 · 김상하

동물털에 의한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은 주로 실험동물을 취급하는 근무자에서 보고가 있다. 그 외에 수의사, 동물사육사 혹은 동물털로 직물을 짜는 직업종사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양고라토끼털을 원료로 하여 합성섬유를 생산하는 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서 발생한 직업성 천식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35세 남자환자는 2006년 5월 30일 발생한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가슴답답함을 주소로 5월 31일 인근 의료를 경유하여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며, 증상의 호전으로 퇴원하였다가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6월 7일 입원하였다. 과거력상 알레르기성 비염과 기관지천식 에피를 들었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냈다. 직업력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비디오 테이프 생산품의 출하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작업과 관련된 천식 증상의 악화는 없었다. 2002년 4월부터 현재 일하고 있는 작업을 하였는데, 2005년 6월에 양고라토끼털 원단이 들어왔을 때 눈과 목에 간지러움 증상이 있었다가 작업을 마친 후에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후 이번 증상이 발생되기 하루 전 다시 양고라토끼털 원단이 들어왔고 야간에 천식 증상이 악화되었다. 작업은 토끼털과 아크릴섬유를 적절한 비율로 수작업을 통해 섞는 작업이었다. 내원시 FEV1 1.71 L (45%), FEV1/FVC 52%였으며, 기도가역성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었다. 유도객담의 호산구는 43%였다. 피부단자시험에서 집먼지진드기와 토끼털, 바퀴벌레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혈청 총 IgE 794 IU/mL였으며, CAP system으로 확인한 혈청 특이 IgE는 토끼털 8.39 KU/L, D. pteronyssinus 49.7 KU/L, D. farinae 72.1 KU/L, 바퀴벌레 10.3 KU/L였다. 천식 약물치료로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외래에서 시행한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에서 양성 반응(PC20 1.96 mg/mL)이었다. 현재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여 증상의 악화는 없는 상태이며, 양고라토끼털 원단으로 기관지유발시험을 계획하였으나 환자의 거부로 시행하지는 못하였다.

— F-334 —

Dapsone hypersensitivity syndrome 1 예

조선대학교병원 내과학교실

*김윤성 · 권용은 · 김동민 · 김상현

Dapsone(4,4'-diamino-diphenyl sulfone)은 강력한 항염 및 항기생충 작용을 가지는 합성체로서 현재도 나병치료에 있어서 일차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유럽과 미국에서는 주로 수포성의 피부병증과 포진성피부염과 같은 다양한 피부질환의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다.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나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용량의존성 메트헤모글로빈혈증과 용혈성 빈혈이 있고 드물게 Dapsone hypersensitivity syndrome 이라 불리는 특이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저자들은 얼굴에 발생한 여드름에 치료를 위해 Dapsone 복용후 발생한 DHS를 스테로이드 치료후 호전된 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Key word : 여드름, Dapsone 과민성 증후군, 스테로이드